

# 대장경 속 우화 ②

- 장님 부부 -

구성-김흥인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고타마를 유혹한 마왕 파순의 딸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왕 파순의 행동은 같은 천신의 입장에서 비난하기 몹시 애매했기 때문에 다른 천신들이 감히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왕 파순의 이런 방해 공작을 경계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마왕 파순의 아들과 딸**

마왕 파순의 아들 이름은 살타(薩陀)이다. 살타는 보살 즉 보리살타의 살타와 같은 뜻으로 중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왕의 아들 이름이 살타(薩陀)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마왕의 자식이라기보다 부처님의 제자에 훨씬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살타는 부처님의 편에서 서서 아버지를 만류한다. 파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정법(正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살타가 아버지 마왕 파순과 적대적인 관계로 갈등을 하며 천륜을 거스르는 불효를 했던 것은 아니다. 살타는 아버지 마왕 파순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샅샅히 알아보았다.

그 후 보리수 아래에 선정에 든 부처님에게 최후의 꾀방을 놓을 마왕 파순의 계획을 알게 된 살타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를 말렸던 것이다.

반면에 마왕의 세 딸 염옥(梁欲), 능열인(能悅人), 가애락(可愛樂)은 아버지를 돕는다. 이들은 마왕의 딸이자 동시에 용모가 아름답고 요염하며 항상 화사한 향을 풍기는, 천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천녀였다. 이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다 써서 유혹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천녀의 유혹을 이겨낸 부처님은 훗날 부처님이 '유혹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여인을 만날 때마다 가차 없이 독설을 날리는데, 그때 마왕의 딸들은 좋은 사례가 되어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파리스와 고타마, 여인을 대하는 차이**

비슷한 상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진행되는 이야기와 결과는 전혀 다르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채 양치기로 있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어느 날,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와 제우스의 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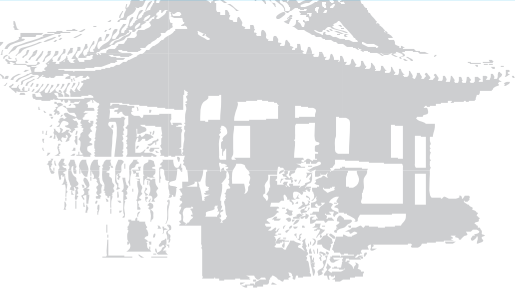
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미(美)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나타난 세 여신은 파리스의 표를 얻기 위해 불멸 선거 유세도 서슴지 않는다. 아테나는 자신을 선택하면 전쟁에서 무적의 힘을, 헤라는 소아시아 전체의 통치권을,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했다. 세 여신의 외모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들의 제안을 꼼꼼히 들은 파리스는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른 선택을 한다. 그의 선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었다.

선택을 받은 여신은 기뻐하며 그에게 유부녀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소개한다. 여신의 힘으로 파리스에게 한 눈에 반한 헬레네는 그 길로 나라와 남편을 버리고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야반도주한다.

이 과정들은 물론 애뜻하고 로맨틱하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파리스의 선택은 그리스와 트로이의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져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트로이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다.

여신의 유혹은 사실 파리스보다 부처님이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경전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어보면 미묘에 약한 혼란남자 파리스보다 무려 여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 부처님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 청동주조의 명가 天鐘社



40여년을 부처님 조성불사에 혼신을 기울여 2010년 대한민국 주조명장의 자리에 오른 천종사 대표 송창일

항상 최선을 다해 후대에 길이 남을 부처님 조성 불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취급품목**
- ☆ 범종
  - ☆ 청동불상
  - ☆ 청동탱화
  - ☆ 단청
  - ☆ 순금불사
  - ☆ 조형물조각